

|  |               |  |     |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|
| <br>부산국제금융진흥원 | <h1>보도자료</h1> |  |     |             |
|  | 보도            | 2024. 5. 20.(조간)   | 배포일 | 2024. 5. 17 |
| 담당부서   | 금융연구2실        | 실 장 안순구 (051-647-9051)<br>팀 장 최승재 (051-631-0285)<br>매니저 이경미 (051-631-0296) |     |             |

## 부산국제금융진흥원, ‘금감원-지자체-금융권 공동 뉴욕 IR’ 참여
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이명호)은 5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금융감독원-지방자치단체-국내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해외투자설명회(INVEST K-FINANCE : NEW YORK IR 2024)에 참석하여 부산금융중심지 홍보를 실시하였음
  -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 금융사 대표가, 뉴욕 현지에서는 주뉴욕총영사와 뉴욕 소재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여하였음
    - ※ 주요 참여기관 : 금융감독원, 지방자치단체(서울시, 부산시), 국내금융회사(한국거래소, 현대해상, KB금융지주, 신한금융지주, 미래에셋증권, 한국투자증권, 삼성생명, 현대해상)
- 동 투자설명회는 그동안 금융감독원-국내 금융회사만 참여하였는데 부산시가 서울시와 함께 동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것은 2023년 런던 IR에 이어 두 번째로서
  -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, 부산의 해양금융 및 파생상품 거점으로서의 특화된 강점과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발전 계획을 제시하였음
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은 "부산은 주변에 경쟁력 있는 많은 배후 산업단지를 확보하고 있으며,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물류가 집적하는 세계적인 물류허브로 부상하고 있다"라며,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
  - 디지털밸리(D-valley) 조성 and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, 부산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
- 이번 설명회는 뉴욕 현지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을 만나 부산금융중심지를 소개하고,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부산시 투자 환경을 적극 알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음